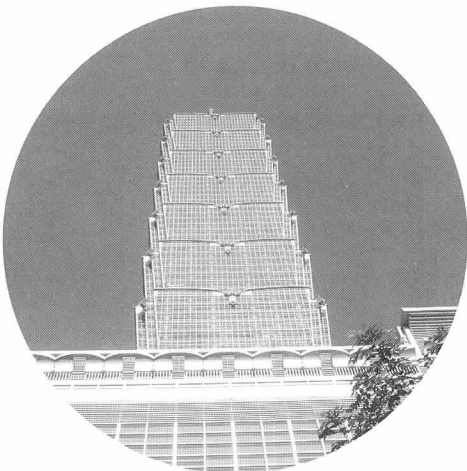


대만 TAIPEI TELECOM을 다녀와서...

고승완/동아일렉콤 글로벌 마케팅팀



정보는 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터링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기업 활동을 서포트하는 대만 정부의 활동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Taiwan World Trade Center 최고층 빌딩

인천공항에서 비행기에 몸을 실어 약 2시간 30분이 지나자 벌써 대만에 도착하였다.

37도를 오르내리는 폭폭 찌는 더위에 영어도 잘 통하지 않아 호텔로 향하는 길도 순탄치 않았다. 공항 버스를 타고 시내에 위치한 호텔로 가면서 차창으로는 대만 타이페이의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많은 스쿠터들이 도로를 질주하며, 치마를 입은 여성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건물 외벽이 심하게 벗겨진 건물 사이 도로를 내달리고 있었다.

여장을 풀고 부랴부랴 찾아갔던 TAIPEI TELECOM 전시회는 신기술을 접하려는 젊은이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한국에서 개최되는 어느 전시회와 마찬가지로, 화려한 복장의 도우미들, 그리고 각종 이벤트 등 많은 볼거리들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전시회는 주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VOIP, 3G)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었다. 21세기 정보통신 강국 한국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정보통신 주류에 편승하려 노력하는 모습이였다.

필자는 KAIT(정보통신 산업협회)의 추천을 받아 정보통신 관련 한국 기업인 3명과 함께 TAITRA(대만무역진흥 공사) 초청 대만 출장을 금번 TAIPEI TELECOM 전시회 기간 동안(3박4일) 다녀왔다.

TAITRA는 한국의 KOTRA(대한무역진흥공사)와 마찬가지로 자국 기업의 해외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산하 기관이다. 두 기관은 양국을 대표하여 자국 기업의 해외 무역 업무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 깊이에 있어서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흔히들 말하는 요즘 기업들의 주요 트렌드 중 하나가 '글로벌'이다.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추세이다.

또한 각국 정부는 이를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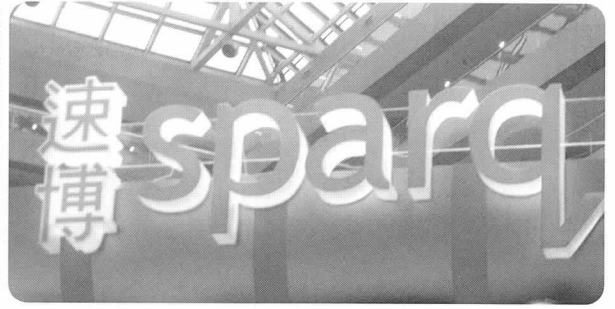
생존을 위하여 좁은 자국 시장을 뛰어넘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기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대만 정부는 대만 중소기업이 처한 정보력 부재를 채워주는 역할을 훌륭한 수행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정보 수집 능력이 떨어진다. TAI-

TRA는 대만 중소기업이 요청하는 정보를 무상으로 수집 및 분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 기업인을 직접 초청하여, 대만의 우수한 Outsourcing Partner업체와 연결시켜 자국 중소기업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끔 일조한다. 필자가 대만에 다녀온 경위도 이러한 TAITRA의 활동으로 인한 것이다.



오늘날 대만 IT기업의 해외 시장 비중은 85%이상이다. 또한 일본 기업 히타치(Hetachi)의 경우 대만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30%의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성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이러한 결과가 전적으로 TAITRA의 공일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중소기업의 정보력 부재를 채워줄 수 있었던 TAITRA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필자도 평소에 KOTRA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외국 산업 관련 정보를 검색하곤 하였는데, 깊이 있는 정보 또는 맞춤형의 정보는 유료 서비스로만 가능했기에 KOTRA를 통한 정보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비록 그 비용이 크지는 않음 지라도 정보 이용을 위해 기꺼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우리 문화에 많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대만 정부 중기 지원 인상적

언젠가 대한민국의 한 정부기관 앞 비석에 '정보는 힘이다' 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었다.

한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정보가 가진 중요성을 함축해 놓은 것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글귀라 생각된다.

정보는 기업에 있어서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하지만, 수많은 정보의 홍수속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필터링하고 분석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에 있어서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한다. 이러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여 기업 활동을 서포트 하는 대만 정부의 활동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어렴풋이나마 TAITRA의 활동을 통해 대만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라 불리우는 이유를 실감하게 되었다.

